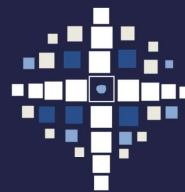


#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84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1.21

##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 홈페이지

theway.news



# 주일에배

##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Ab Eb Bb Cm
Ab
Bb4 -3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서 교독..... <시편 4편>..... 다같이

(인도자)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도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성도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도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성도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인도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도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인도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성도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인도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성도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인도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같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누가복음 18:35-43>.....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sub>3</sub>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성경말씀 메시지

35-37 예수께서 여리고 외곽에 이르셨다.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무리가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38 그러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41 그가 말했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42-4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낮게 했다!”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앞이 보였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합류하여,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 성경말씀 개역개정

35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고 물은대 37 그들이 나서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 말씀묵상



# 감사찬양

## 감사하여라

E B<sup>7</sup> E A B<sup>7</sup> E



감 사 하여 라 영 원 한 주 님 께 그 의 선 하 신 행 위 를

E B<sup>7</sup> E A B<sup>7</sup> E



기 억 하 여 라 용 서 의 주 님 을 그 가 죄 를 사 하 셨 네

A Am E C#m F# B<sup>7</sup>



그 의 인 내 와 자 비 와 은 - 혜 측 량 할 길 이 없 네

E B<sup>7</sup> E A B<sup>7</sup> E



그 가 우리 의 죄 를 사 하 셨 네 와 서 주 께 경 배 하 세

# 교회안내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 길목교회 가치추구

##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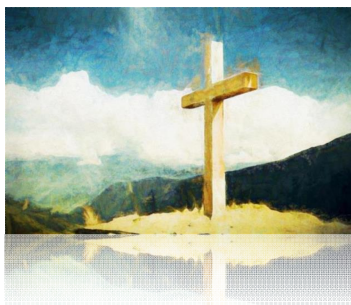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 메모





# 공동체소식

##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새해맞이 강화도 성지탐방

일시: 오늘 주일 오후 2시 - 7시 (함께 식사 후 마칩니다)

회비: 저녁 식사비 1만원씩 지참

강사: 임경묵 목사 (다바르 말씀사역원 원장, '경계에 선 사람들' 저자)

장소: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12-21)

## 신년 성경통독 (50일 신약성경통독)

50일로 계획된 신약성경통독 일정중 18일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열심히 참여하며 파이팅해주세요^^

## 도심속 기도원 프로그램 운영

매주 화요일 길목교회 예배당은 <도심속 기도원>으로 운영됩니다. 이 날 이 장소에서는 오셔서 오직 기도와 말씀묵상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항상 틀어져 있고, 식사는 사무실이나 교육부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시 항시 문은 잠가주세요)

## 식사 섬김 안내 (감사한일, 특별한날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세요)

\* 1월28일-이춘원,정지혜/ 2월18일-조건형,김정인/ 3월24일-유창호 (이상존칭생략)

## 모리셔스 재난 구호 헌금

모리셔스는 인구의 절반이 힌두교이고 기독교인은 소수이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가 1월 15일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Belal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교회들도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나라인지라 뉴스에 큰 잘 나오지 않아 도움의 손길이 많지 않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사역하는 유일한 우리교단 사역자 '최인규,박정희' 선교사와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 후원하실분은 길목교회 통장으로 <모리셔스홍길동> 식으로 모리셔스 뒤에 이름을 붙여 송금해주시면 이번 달 말까지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